

#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The cultural marketing and role of lighting

필자 : 방선주, 송실대학교 실내디자인 석사, 2008하이서울페스티벌 겨울축제 기획연구원, 한국공간환경디자인학회 조명위원회 위원, 현대도시와 환경 선임연구원

by Bang, Seon-joo



2004년 한국항공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2011년 송실대학교에서 실내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겨울빛축제를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쌓은 후 현재 도시와 환경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공간환경디자인학회 조명위원회 위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 기초조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건축 파사드는 예술과 접목이 되어 미디어 아트 또는 디지털 아트의 거대한 Display Canvas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되는 도시단위 이벤트의 추세와 고층건물의 경쟁적 건립 추진 사업으로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전망 또한 밝게 나오고 있다.

본 연재는 국내에서의 미디어 파사드의 효과와 법적 규제에 관한 내용,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미디어파사드 조명 설치 방식의 장, 단점을 통해 미디어파사드가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설치방식을 적용한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시 고려되

라		지	
1.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손장복	동양대 교수	
2. 미디어 파사드-건축과 조명의 만남	방선주	송실대 석사	
3. 도시 공공디자인과 빛환경	김국선	김포대 교수	
4. 도심 보행자중심가로의 시퀀스 경관과 경관조명 연출	이지은	홍익대 석사	
5. 조명디자인과 컬러	서혜옥	중앙대 교수	
6. 도시 빛환경과 조형성	김영진	이화여대 석사	

어야하는 항목들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건축과 조명의 융합이라는 현상을 다룰 예정이다.

도시공간의 미디어파사드 연출은 기존의 건축물 혹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강력하고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맞추어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명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에서의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전반적 고찰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국내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기대한다.

## 2.미디어 파사드 - 건축과 조명의 만남

### 2. Media facade-Harmony of Architecture and Ligh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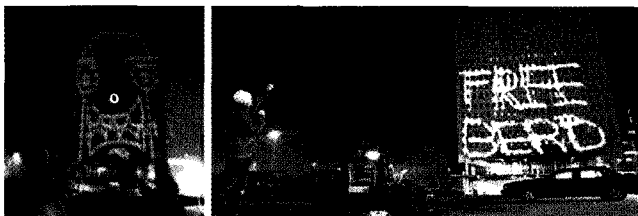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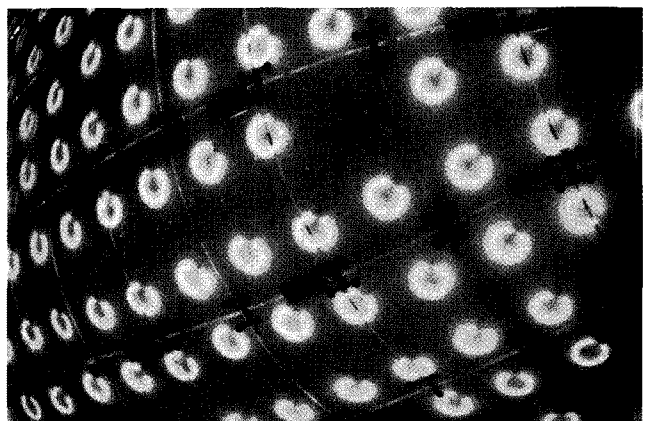
디자인에서는 그 대상에 따라 여러 분야의 협업이 이뤄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공공 디자인(Public design) 영역도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건축·조명·디지털미디어·정보기술(IT) 등 여러 분야가 접목된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가 21세기 건축 예술, 더 나아가 산업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하나의 새로운 예술분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미디어파사드란 매체(media)와 파사드(façade, 건물 전면)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에 LED등의 조명을 설치해 건물 전체를 하나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건물외벽이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사용된다. 건물 전면부에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며 디지털 미디어의 형식을 빌려 동적인 그래픽, 텍스트, 이미지 영상까지 표현이 가능한 조명방식이다. 주간에는 건물이 가진 고유의 형태에 의한 디자인이 부각이 되며, 야간에는 빛을 통하여 건축물에 색상을 입힘으로써, 고정성이 강한 건축물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건축물 자체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시각 및 공간 예술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건축 파사드는 예술과 접목이 되어 미디어 아트 또는 디지털 아트의 거대한 Display Canvas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 되는 도시단위 이벤트의 추세와 고층건물의 경쟁적 건립 추진사업으로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전망 또한 밝게 나오고 있다.

파리의 에펠탑과 서울의 63빌딩이 그러하듯 고층건물이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에, 건축물 파사드에 LED 조명의 적용은 랜드마크를 뛰어 넘어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기억되는 예술의 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 도입된 것을 시초로 현재는 도심 곳곳에 영상 예술을 활용한 건물 외관조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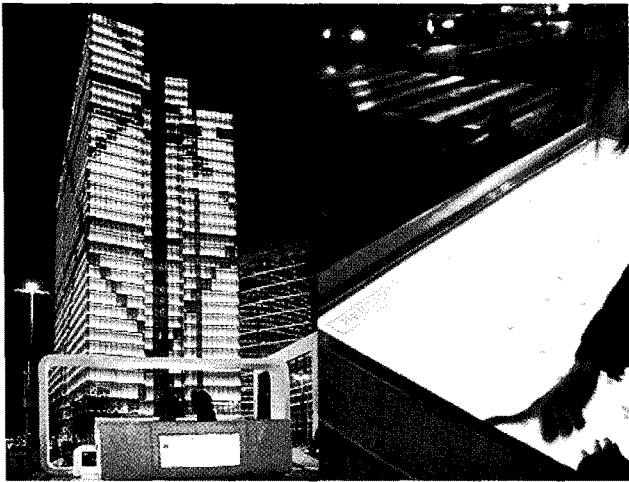
미디어파사드를 이용한 건물은 외벽에 조명을 이용하여 주변 건물들에 비해 차별화된 외관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지역적 랜드마크로서 보다 주목 받게 함으로써, 광고효과와 동반되는 건물 자체의 인지도 상승과 이에 따른 상업적·경제적 가치의 극대화, 더불어 건물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질적 가치의 향상과 이로 인한 관광산업의 효과 등 그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공간에서 미디어파사드를 통한 조명연출은 도시의 모습들을 선택적으로 보여주어 주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모를 부각시켜 도시를 매력적인 모습으로 재탄생시킨다. 낮 동안의 삭막했던 도시를 색색의 조명 연출로 감성을 자극하여 사람들의 시각을 즐겁게 해주고 야간의 도시공간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심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파사드 등의 예술적 조명 연출을 통해 오늘날 도시 조명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오늘날 조명은



LASER Tag, 미국

그라츠 쿤스트하우스, 오스트리아



Dexia 타워, 벨기에

더 이상 단순히 어둠을 밝혀 시야를 확보하고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에 조명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야간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고 도시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도시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도시의 새로운 상징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21세기인 현 시점에서 조망해 볼 때 빛은 초기 안정, 어두움을 밝힘 등의 기능적인 목적에서부터 발전하고 변화하여, 빛을 장식의 차원으로까지 이용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새로운 건축적 표현양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조명은 발광다이오드(LED),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액정 디스플레이(LCD), PLS(Plasma Lighting System) 등 다양한 전자소재들이 광원으로 등장하며 전기조명시대에서 전자조명시대, 디지털 조명시대로 접어드는 경계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파사드 조명 방식에는 점멸 방식의 고정식 설치방식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유동식 설치방식이 있는데, 최근까지는 주로 밝기 이외의 상태의 변화 없이 주로 조명의 점멸 기능만을 사용하는 고정식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고정식은 한번 설치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단점이 있지만 조명의 점멸 기능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콘텐츠 자체가 다소 단조로운 면이 있으며, 일반 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정식은 건물의 야간점등과 같이 건축의 일부로서의 조명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유동식은 광원을 이용한 미디어아트로서의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융합디자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조명은 기존의 단순히 켜고 끄는 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제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기능의 발현, 발전과 활용분야가 점차 확대된 조명 방식으로, 최근에는 LED 또는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

는 유동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디어파사드는 이러한 디지털 조명의 대표적인 활용사례로서 일반 조명에 비해 대체로 전력 효율이 우수한 면이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단순한 건물의 조명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듯 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를 보는 것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식상함을 주지 않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구입에 해야 하는 비용적 제약조건이 있다.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시 고려 사항으로는 크게 유지·관리, 콘텐츠, 제품의 영역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유지·관리는 운영업체 혹은 건물관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장발생 시 신속한 교체와 수리가 용이하도록 제반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콘텐츠는 미디어 작가에 연관되는 것으로 미디어파사드의 연중 가동 시 지속적인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물이 지향하는 콘셉트에 맞는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작가 그룹의 선정과 프로그램의 관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명제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제작 및 설치 업체이다. 낮 시간대의 조명 소등 시 건물과 미디어파사드의 설치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지 않고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설치상의 고려점이 있다. 건물의 외부에 설치되는 특성상 조명제품의 방수, 자연광으로부터 내구성이 뛰어나 외부환경에 대하여 충분한 수명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선정과 외부 기후환경에 대한 광원의 수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디어파사드는 그 자체가 예술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관광상품으로서의 상품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관광산업은 그 부가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가능성을 가진 산업 분야다. 최근 들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해외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 리옹의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첫 번째로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이자 미디어아트 분야의 유일한 창의도시인 리옹은 현재 전 세계 미디어아트의 중심지로서 타 미디어아트 도시들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리옹은 특히 공공부문 예산 20%를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문화 분야에 할당하고 있는 등 미디어아트를 리옹의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관광산업은 아직도 팔 수 있는 관광상품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장점이 있다.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의 가장 긍정적인 면은 바로 역동적인 이미지와 IT강국으로서의 이미지이다. 따라서 미디어파사드야말로 이러한 우리의 장점들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



무어필드 안과병원, 영국

운 예술 분야이자 산업 분야라고 하겠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미디어 파사드는 일몰 후 30분 이후에 점등하고 23시에는 소등해야 한다. 영상 연출 시간은 시간당 10분 이내여야 하며 단, 야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의 미디어 파사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행인과 차량 운전자에 미치는 교란 효과 때문에 상업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파사드를 단순한 경관조명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것으로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작품성 등 예술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미디어파사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미디어파사드를 단순한 경관조명

으로 보는 시각과 아트 즉, 예술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외형적인 설치방식으로 보자면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 일부에 미디어파사드가 속한다. 반면 내용적으로 본다면 단순 빛의 연출인 경관조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예술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공간 예술의 한 분야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미디어파사드와 관련한 법적 규제 기준을 경관조명의 시각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예술작품의 미디어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도시에서의 미디어파사드가 담당하는 역할은 어느 한쪽의 영역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경관조명과 예술, 이 둘이 합쳐진 양쪽 모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규제 역시 미디어 콘텐츠의 아트로서의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는 빛의 공해에 살아온 면이 없지 않다. 어지러운 네온사인과 무분별한 조명은 우리에게 빛이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게 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기여를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문화 마케팅적인 측면, 더 나아가 관광 자원의 개발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규제보다는 실험적인 시도들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파사드는 건축을 넘어 도시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문화에 기여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도시가 예술적 디자인조명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미디어파사드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문화적 아이টে이다. 앞으로는 도시의 건축물이 예술적 빛의 문화와 융합됨으로서 활력과 생동감을 줄 수 있는 '도시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